

피아니스트 한유니의 연주는 “물 흐르는 듯한 음색과 시적인 표현 그리고 천상의 선율 같다” (신시내티 인콰이어러), 또는 “마치 피아노가 노래하는 듯하며, 그녀의 음악적 상상력과 감정은 생생한 이미지를 끄집어낸다.” (워싱턴포스트)라는 호평을 들은 바 있다. 그녀는 여러 유명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이어진 세계의 주요 콘서트홀에서의 연주에 대해서도 최고의 찬사를 받아왔다.

한유니는 삼익 피아노 콩쿠르, 이화 경향 콩쿠르, 한국일보 콩쿠르, 한국음악 콩쿠르 등에서 우승하였고 13세에 서울시향과 데뷔 연주를 한 이래 베를린 교향악단, 버팔로 필하모닉, 헬싱키 필하모닉, 휴스턴 오케스트라, 신시내티 심포니 오케스트라, 마이애미 심포니 오케스트라, 밴프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산타 크루즈 오케스트라, 줄리아드 오케스트라,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홍콩 챔버 오케스트라, 뉴 암스테르담 오케스트라, 터키 대통령 오케스트라 등과 연주를 하였으며, 베를린 필하모닉 홀, 암스테르담 콘서트 헤보우, 링컨센터, 카네기홀, 케네디센터, 세종문화회관, 탕글우드 페스티벌 등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WQXR- New York과 National Public Radio의 ‘예술가 쇼케이스’에서의 연주 실황이 전 미국에 방송되기도 하였으며, 폴브라이트 재단 후원으로 미국과 유럽의 스타인웨이 홀 순회 연주를 하였다. 스타인웨이 레코드에서 발매된 앨범 ‘사랑과 그리움’, ‘고예스카스’, ‘나이팅게일’은 빌보드 클래식 차트 Top 21 에 올랐고 그 외에도 Centaur Records와 Concert Artists Guild 에서 음반을 발매하였다. 가장 최근 음반 ‘할리우드 로맨스’ 는 유니버설 뮤직 레이블에서 발매되었다. 실내악에도 조예가 깊어 2014년에 글로리오사(Gloriosa) 피아노 트리오를 창단하여 활발히 활동 중이기도 하다.

2009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갖춘 유망 피아니스트”에게 주는 가윈 음악상을 받은 그녀는 워싱턴 국제 피아노 콩쿠르, 폴브라이트 콩쿠르, 신시내티 월드 피아노 콩쿠르, 코쥬스코 쇼팽 콩쿠르, 줄리아드 지나 박하우어 피아노 콩쿠르, 줄리아드 노드만 피아노 콩쿠르, 줄리아드 모짜르트 협주곡 콩쿠르, 줄리아드 쇼팽 피아노 콩쿠르 등에서 우승했으며, 미켈란젤리 국제 피아노 콩쿠르, 이탈리아 Ettore Pozzoli 피아노 콩쿠르, 핀란드 Maj Lind 국제 피아노 콩쿠르, 스페인의 발렌시아 국제 피아노 콩쿠르 등에서 상위 입상했다. 또한 대한민국 문화부 장관상, 이탈리아 아카데미 Brava!상과 런던 키보드 협회에서 상을 받았다.

한유니는 예원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서울예고 수석 입학 후 도미해 줄리아드 예비학교 졸업 후, 커티스 음악원에서 학사를, 줄리아드 음대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몬트리올 대학에서 전문연주가 과정을 공부 후, 뉴욕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5-18년 터키 빌켄트 대학 음악학과 피아노 주임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하버드대학, 뉴욕주립대학, 뉴욕시립대학, 보스턴대학, 버클리대학, 샌프란시스코 콘서바토리 등에서 초빙교수로 강의하였다. 또한 2018년부터 터키의 이스탄불 국제 피아노 페스티벌과 Steinway Prize 를 창립하여 총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홍콩 침례 대학의 조교수로 2018-2023년 재직 후, 현 뉴욕 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스타인웨이 아티스트와 스타인웨이 명예교수로 활동 중이다.